

'애환 · 삶 그리고 신명' 찾아가는 국악 공연

남원시립국악단,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등 지역 돌며 기악합주 · 민요 등 다채롭게 진행

남원시립국악단이 국악 고유의 멋을 느끼고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읍면으로 찾아가는 국악-창극 공연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악단은 지난 1월부터 읍면과 관계기관의 신청을 받아 공연 장소를 선정, 오는 9월 장애인복지시설 스페셜필을 시작으로 남원시노인복지관, 운봉, 대강, 아영, 산동 등 지역을 돌며 기악합주, 무용, 단막극, 민요 등 다양한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공연신청은 10월부터 수요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애환, 삶 그리고 신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으며, 기악합주에 구슬을 더한 '푸리', 무용은 고방살풀이, 화선무, 한량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위하여 단막극을 새로 구성, 남원의 대표 판소리 춘향가 중 십장가와 아사상봉마, 흥보가 중 화초장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이외에도 올해 관현투원 수요상설공연 '전통소리춤', 금요상설공연 '광한투의 밤풍경', 남원창극 춘향(가제), 국악의



남원시립국악단이 국악 고유의 멋을 느끼고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읍면으로 찾아가는 국악-창극 공연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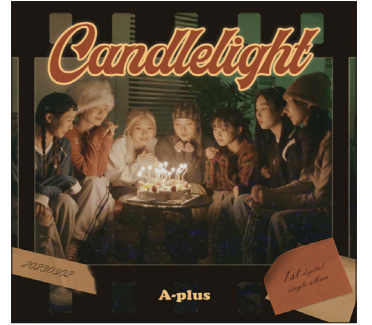
성지 '흥겨운 우리가락' 등 상설공연과 기획공연 창극 '만복사저포기' 등 풍성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은 "국악 공연 활

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작품성이 높은 창극 공연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 공연할 수 있는 국악 전용극장 건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 3호 걸그룹 'A-Plus' 탄생

문화예술대학 융합프로젝트 결정체... 음원 · 뮤직비디오 공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에서 세 번째 걸그룹 A-Plus(아플러스)가 탄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K-pop학과에서 자체 제작해 많은 이목을 끌었던 Aser(아제르), 실용음악학과와 기획전공 학생들의 융합 프로젝트로 완성된 Azer Blossom(아제르 블라썸)과 Kairos(카이로스)에 이어 문화예술대학의 융합프로젝트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3호 걸그룹 'A-Plus(아플러스)'가 지난 2일 음원 및 뮤직비디오와 함께 출시됐다.



특히 '자유롭고 청량한 젊음'을 표방하는 A-Plus(아플러스)의 정체성을 완벽히 투영한 'Candlelight'는 팝 기반의 레트로 댄스곡으로, 리드미컬하고 임체적인 사운드와 더불어 멤버들의 목소리로 수놓아진 청량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번 작업은 실용음악학부 뮤직프로덕션 전공생이 작 · 편곡과 기타세션으로 참여했다. 주목할 것은 '아제르'의 멤버인 장주연 ·

강유경 · 최유진이 작곡, 작사, 코러스, 안무와 비주얼 디렉팅까지 맡아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한편 3년째 성공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원대학교 특성화 사업은 문화예술대학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학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 지식살롱' 개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공동 기획

제1회 전북 지식살롱이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 기획했다. 이에 따르면 그 첫 번째로 8일 온보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서경중 본부장이 출연한다. 서 본부장은 '범 내려온다'로 알려진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을 기획한 광고 전문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노랑풍선 브랜드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캐릭터를 개발한 인터브랜드 정하진 이사가 '브랜드, Everything is Connected'를 주제로 소화에 나선다.

4월부터는 마케팅, 광고, 홍보, 언론, 관광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한편 전북 지식살롱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격주로 운영된다. 첫 강연은 8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당일 오전 11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도내 관광기업의 성장 지원 뿐만 아니라 도내 관계 인구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SNS 시민기자단'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9일까지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민이거나, 재학 · 재직 등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사람이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이다.

전당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기자단은 매월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전당과 관련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해 전당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후 후기를 작성하는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기자단에는 위촉장과 기자증, 명함, 조끼 등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콘텐츠 생산에 따른 비용도 지급된다. 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전당 주최 각종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이 직접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고 이를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기자단이 한지 · 한식 · 한복 · 공예 · 전통놀이 등 우리만의 매력을 세계 속에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고미경 개인전' 개최

오는 8일 ~ 13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고미경 개인전 '꽃과 사랑'이 열린다.

고미경 작가는 전주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창작민화과에 재학 중이다. 이번 전시는 그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모두 20여 회의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 제6회 현대 민화 공모전 장려상, 제13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전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사)한국민화협회 이사, '꽃과 그림 민화'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미경 작가는 '민화의 현대화'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미술평론가, 신항섭'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입묘(臨摹)의 수준을 넘어 창의적인 영역으로써 민화

를 현대화하는 길로 들어섰다. 즉 작가는 전래의 민화 원작을 카피하는 단계를 넘어 그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렇다고 민화적인 속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고미경 작가는 민화로써의 여러 가지 조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재의 배치 및 구성에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작품 중에는 대작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대형 화폭을 경영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 돋보인다. '모란꽃 사랑'을 비롯해 '모란도' 두 폭, 50호 크기 다섯 폭을 이은 '봄 날', '서로 사랑' 등 일련의 작품을 살펴보면 대형 작품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란꽃 사랑'과



신세계, 2020.

'신세계'에서 소재의 배치 및 조합, 구성면에서 대작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남다른 조형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고미경 작가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술적 영감을 받아 작업을 선보였다"며 "이번 전시 '꽃과 사랑'을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거리 공연 펼쳐

2023 전북 아시아 · 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지난 4일 한옥마을 경기전 앞 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거리공연은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탠다드 재즈, 팝, 가요 탭댄스와 보컬 버스킹 공연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객의 인터뷰와 응원 메시지 촬영, 홍보 물품 배부 등 대회 불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전라북도 예술인과 협업체 전국을 돌며 릴레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5월 대회 개최 전까지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찾아 버스킹, 이태 퀴즈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 경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는 모집 마감일인 오는 12일까지 참가자 모집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이제 대회가 67일 앞으로 다가왔다. 운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SINCE 1984.03.14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39

주년

서른아홉 번째의
봄을 맞이하기까지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사랑을 싹틔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신천지예수교회